

예술과 독립운동... '남도의 빛' 밝히다

3·1운동 100주년, 임정 수립100주년

부부독립운동가 최원순·현덕신의 삶과 발자취

광주최초 여의사, 현덕신

어느 날 새벽이었다. 누군가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떠 보니 2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우직해 보이는 청년 한 명이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다. 사색이 되다시피 한 낯빛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짐작케 했다. 청년은 "급한 환자가 있어요. 산모가 위급합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광주 개업 시절 진료하고 있는 현덕신. 당시 현덕신 의원은 현재 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자리에 있었다. <사진제공 최영훈 전 조선대 미대 학장>



손연자 조각가 작 '최원순과 현덕신'.

이화학당 졸업, 교사생활하다 유학

1923년 최원순 만나 결혼

독립자금 내놔고 고초 겪기도

조선 세번째, 광주 첫번째 여의사

1947년 광주 YWCA 이사 활동

에 입학하였고 1915년에 이화학당 중등과(8회)를 졸업생 12명 중 1명으로 졸업했다"고 나와 있다.

이화학당을 졸업하고는 평양의 진명여자 학교 교사로 부임해 2년여 교직생활을 한다. 이후 유학을 결심하는데 '신문명을 받아들이고 반도 삼천리에 빛을 밝히고 불쌍한 동포들을 희생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이 있었다.

"내가 의사가 되려는 동기만은 껍이나 순결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조선여자들을 위하여 도움이 될까 조선 사회에 유익한 인물이 될까하고 생각다가 교육계로 가는 것보다도 병이 들어서 죽을 지언정 남자에게 밟이지 아니하려고 하는 조선여자들을 위하여 봉사적 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현덕신, 『卒業生諸兒들에게 들림』, 『여자계』 제3호, 1918.9.)

그렇다면 현덕신과 최원순은 어떻게 인연을 맺었을까. 2·8독립운동 시절 와세다

대학생 최원순을 만나 1923년 결혼을 한다. 현덕신은 1919년 독립자금 40원(쌀 1가마가 5-6원)을 2·8독립운동 준비 자금으로 내놨다. 거사 이후 조선청년독립단과 함께 검속됐지만 가까스로 구국을 피하고 풀려난다.

이후 현덕신은 '조선여자친목회'에서 총무를 맡았고, 기관지 '여자계' 2호를 발행할 때는 회계를 담당했다.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과감한 실행력은 보통의 여장부를 넘었다.

귀국해서는 한손에는 청진기를, 한손에는 태극기를 들었다. 모든 것은 '조선여성'을 위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근우회'와 '조선여자기독교 청년회' 활동을 펼치며 민초들의 건강과 조선독립에 매진했다.

그러나 남편 최원순의 건강 악화로 광주에 내려오게 된다. 1927년 10월 광주군 수기읍정 350번지에 현덕신의원을 연다. 남도에서는 최초 여부인의원이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는 "경성에서 총독부병원과 동대문부인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연구에 연구를 쌓아오던 중 광주지방 인사들의 열렬한 요청을 차마 저버리지 못하여 조선여성계에 선각자이니 만큼 광주사회에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라는 내용이 나온다. (1927.10.30.)

광복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1947년에는 광주 YWCA 이사를 맡아 활동한다. 신생유치원과 신생보육학교 설립은 물론 여성을 위한 애국계몽운동과 문맹 퇴치에도 진력했다.

오늘의 광주와 남도는 독립운동가이자 여의사인 현덕신에게 진 빚이 많다. 그러나 여성운동사, 한국의료사, 독립운동사에 현덕신의 자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를 오늘에 불러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민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광주 아리랑'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25일 5·18민주광장 예술제

시민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광주민족예술제가 펼쳐진다.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민예총·회장 박종화)는 오는 25일 5·18민주광장에서 민예총 예술인들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예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민족예술제는 올 1년 민예총 예술인들의 성과를 시민들과 나누는 자리다. 사전행사로 시민무료체험이 있고 이후 전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시민단체들의 이슈파이팅(시국메시지) 부스에서는 시



박종화 회장

우기, 떡메치기가 진행된다. 작폐청산과 민족통일을 기원하는 민예총 의지를 담은 1000개의 빨간풍선길 내기도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이다.

국의 헌안도 짚어낼 예정이다. 먼저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시민무료체험은 책 나눔 팬 사인회, 무대복장체험, 판화작기, 털 만들기, 풍물체험, 단소 체험, 스토리사진 찍기, 탈춤배우기, 떡메치기가 진행된다.

이어 전통음악과 춤의 앙상블, 합창단, 오월남독극, 세월호 퍼포먼스, 민중미술 파사드, 오월음악회가 진행된다.

관심을 끄는 행사는 민족미술인협회 민중미술 미디어파사드다. 5월과 통일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도청본관에 '빛의 갤러리'로 전시한다. 43인의 예술가 430여 점의 작품을 오월음악 창작가요제대상곡 배경음악으로 감상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방울 국악제' 수상자들 카자흐스탄서 전통공연 선보인다

26일까지 알마티 공연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이 26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공연을 펼친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고려인 정주 82주년과 한·카자흐스탄 수교 27주년을 맞아 우리 동포와 현지인들에게 전통국악을 선보이고자 기획됐다.

24일 오후3시 알마티한국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공연에서는 김홍수 주일마티대한민국총영사, 남현우 알마티한국교육원장, 알마티주 각급 기관장 등 1000여 명의 관람객에게 한국전통예술무대를 선보인다.



정혜빈 명창

공연단은 올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정혜빈 명창과 26회 대통령상 수상자 정상희

명창을 비롯해 국회의장상·국무총리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광주시장상 수상자 등 28명으로 구성됐다.

정혜빈이 국악가 '배 띄워라'를 선보이고, 정상희가 판소리 '속대머리' 중 '사랑'을 공연한다.

지난해 농악 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주완 등 6명이 선보이는 '풍물판굿', 황소희 등 7명의 '부채춤'과 '쇼고춤', 임재현의 가야금병창 '단가: 호남가', 나영선 등 4명의 기악합주 등도 무대에 오른다. 또 정동원군이 선보이는 색소폰 연주, 전 출연자가 함께 '아리랑 연곡'을 부르는 무대도 마련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하모니카의 아름다운 음색 가을밤 수놓다

뉴월드하모니카 문화예술협

26일 문예회관 콘서트

맑은 하모니카 음색이 광주의 정량한 가을밤을 수놓는다.

'하모니카의 아름다운 울림 2' 콘서트가 오는 26일 오후 6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비영리 하모니카 협회(사)뉴월드하모니카 문화예술교육협회(협회장 황희)가 창립을 기념하는 창단 연주회로 기획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황금화 협회장이 직접 가르친 20여명의 하모니카 강사·회원들이 솔로와 듀오, 앙상블을 선보이며 다채로운 연주를 선보인다.

이날은 가곡을 비롯해 클래식, 팝송, 대중가요 등 30여 곡을 연주한다. 탱고 음악 '라 콤파르시타'와 '리베르 탱고', 뮤지컬 '캣츠' 중 '메모리', '헝가리 무곡', '베사



'NW첼버오케스트라'

메무쵸', '엘 콘도 파사', '이별의 부산정거장', '용두산 엘레지' 등 잘 알려진 곡들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또 하모니카 전문강사 한지희가 '클레멘타인', '솔베이지의 노래', '추억의 쇼아곡'을 다양한 주법으로 연주하는 솔로 무대를 선보이며 '힙합크루 817'의 자작곡 합작 무대, 황 협회장의 지휘로 만나는

'NW첼버오케스트라'의 합주 공연도 만날 수 있다. 마지막 순서로는 모든 연주자가 함께 무대에 올라 노사연의 '민남'을 연주한다.

장소정 아나운서가 사회자로 참여하며 제스밴드 '플라로이드'가 반주를 담당한다. 대인 1만원, 소인 5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G.O.Auction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기치높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중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가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중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높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근린시설** 전남 목포시 명륜동 토지 1131㎡(342.128평) 건물 : 7617.71㎡(2304.367평) 지하3층 지상8층 **감정가 : 54억6천5백만원 최저가 : (70%) 38억2천5백5십만원**
- 근린주택**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토지 : 224㎡(67.8평) 건물 : 264.27㎡(79.9평) 지상2층 **감정가 : 4억6천2백만원 최저가 : (70%) 3억2천3백5십만원**
- 다가구(원룸)**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운리 토지 : 1582㎡(478.6평) 건물 : 298.92㎡(90.4평) 창고, 공장, 근린시설 적합 **감정가 : 3억6천1백만원 최저가 : (56%) 2억 2백2십만원**
- 다가구(원룸)** 광주 북구 풍향동 767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70%) 4억7천4백만원**
- 주택** 광주 남구 백운동 토지 : 225.5㎡(68.214평) 건물 : 243.77㎡(73.74평) **감정가 : 3억1백3십만원 최저가 : (70%) 2억1천9십만원**
- 아파트** 광주 서구 금호동 쌍용에가 55평형 **감정가 : 8억3천5백만원 최저가 : (70%) 5억8천4백5십만원**
- 아파트** 광주 서구 풍암동 에스케이뷰 56평형 **감정가 : 8억2천만원 최저가 : (70%) 5억7천4백만원**
- 오피스텔** 광주 서구 치평동 로잔티움파크 78평형 **감정가 : 4억4천1백만원 최저가 : (70%) 3억 8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